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광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교육요소가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대학교육요소가 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교육요소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요소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가 학생들의 창업의지, 학습태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방법이, 학생들에게 창업동기 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창업인재의 발굴과 대학생에게 맞는 창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대학별로 차별화된 대학의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대학의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교육방법, 수업태도, 자존감

I. 서론

대학생의 창업은 각기 다른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융합성과 통합성이 결합된 유연한 창의적 수익창출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이중학문의 결합과 융합은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문의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의적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생 창업이다. 창업만큼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고 융합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해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전후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 중에 취업과 창업으로 양분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창업의지를 지속시켜 실질적인 창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중요하며, 대학,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창업전문가, 창업한 졸업생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대학에 창업에 관련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높여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창업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2008년 전체 실업자(실업률)가 77만 명(3.2%)에서 2009년 89만 명(3.6%), 2010년에는 92만 명(3.7%)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말 기준 15~29세의 청년실업자는 3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청년실업률 또한 8.0%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확산정책에 의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신설법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을 포함한 청

년창업의 경우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신설법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4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지 대학생들의 창업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전체 신설법인 중에서 39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상반기에는 28.2% 수준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 CEO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8년에는 12%로 42%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포함 청년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2001년 87만 7천명에서 2011년 42만 6천명으로 감소했다.

대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률은 이들의 낮은 기술지식이나 혁신적 역량과도 무방하지 않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상업화 인증건수 및 지적재산권 건수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경우 지적재산권등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창업이 벤처창업과 같은 기술창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3%가 창업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귀족알바가 대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유는 응답자의 29.1%가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큰 돈을 벌고 싶어서'(25.6%),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21.7%),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14.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최근 평생직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취업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청년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자 정부 차원에서도 ‘창조 경제’를 슬로건으로 창업 강좌, 창업 학과 등 창업 친화적인 인프라를 확산시키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창업이나 2000년대 초반 IMF 위기 이후, IT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 열풍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는 무거운 창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나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가볍고 재미있는 지식 창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수월하게 창업을 시도함으로써 전문 경영인으로써의 변모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 개최)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 개최)가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 개최)가 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

창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구체

적 발현이며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는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으로 창업기업이라 하면 모기업 없이 새로이 형성된 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 기업의 회사나 모기업이 있으며 브랜치(branch)형태의 기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이재훈, 2013).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창업과 소기업 경영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예컨대, 창업은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시장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과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소기업 경영은 이미 설립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창업과 소기업 경영은 같은 개념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강조하는 주안점이 서로 다르다.

2. 대학 기업가정신과 연구동향

대학 기업가정신(University Entrepreneurship)이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창업·산학협동연구·특허·라이센싱·창업지원·국가/지역경제발전·교육혁신 등 대외적 혁신/연계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학교 위상 강화와 수익창출에 기여하려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보면 대학 기업가정신은 대학이 기업가적 주체임을 명시하고, 기업가적 활동의 핵심대상의 영역이 있으며, 기회에 초점을 맞춘 목표지향적 활동이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행동이 수반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배종태 & 차민석, 2009).

결국 각 부문/활동에서의 대학 기업가정신을 통해 학교 전체에 기업가적 문화가 조성되었을 때, 그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대학에 서 있어서 이렇게 기업가정신이 중요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이 인력양성, 지식창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지식중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역할은 ① 교육(teaching new knowledge), ② 연구(creating new knowledge), ③ 기여(disseminating new knowledg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수인력, 신생지식/기술, 아이디어/지혜가 공급된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에서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ivy tower)에 머물고 혁신엔진(innovation engine)으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입장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기술들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거나 다양한 수익창출 메커니즘도 도입하는 등 산학협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배종태 & 차민석, 2009).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학의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컨대 대학이 연방정부의 자금에 의한 발명을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 Bayh-Dole법의 경우 대학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발명의 많은 증가를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학들의 많은 차원들에 있어서 기업가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특허와 라이선스, 인큐베이터,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대학 분사(university spin-outs), 그리고 창업과 인큐베이터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Rothaermel et al., 2007).

대학에서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창업에 대한 교육도 많이 확대되었는데, 현재 창업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하지만, 창업교육의 응용된 형태로 강의가 개설된 것은 1938년 일본의 고베대학이다. 미국에서는 1946년 하버드대학에서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을 위해 MylesMace가 처음 창업교과 과정을 개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PeterDrucker는 1953년 뉴욕대학에서 벤처창업과 혁신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상대에서 이 강의를 시작된 것은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이다(Vesper & Gartner, 1997).

교육에 있어 초기 강의의 초점은 중소기업경영에 있었다. Kirzner는 1971년부터 각 대학의 창업강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의내용, 수업내용, 교육적 실험, 그리고 수업 외 활동 등을 분석하여 「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란 책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많은 학교들에서 창업에 관한 강의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을 보고했다. 즉, 1967년 10여개 이내의 학교에서 창업에 관한 강좌가 개설된 것에 비해 1970년에는 30개 학교, 1975년에는 약 105개 학교, 1980년에는 약 173개 학교, 1984년에는 약 250개 학교, 그리고 1993년에는 370여개의 학교에서 창업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1997년에 이르러서는 400개의 4년제 대학에서 그리고 600여개의 college에서 창업과 관련된 과목을 1년에 최소한 1번은 개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원 석사수준에서 전공은 1972년 Southern California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20개에는 달하는 창업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창업자들 및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Vesper & Gartner, 1997).

학부에서 전공은 1968년 Babson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Baylor대학교, Calgary 대학교, 그리고 Wichitastate에서 이 강의를 제공했다. Babson 대학의 경우 교육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기업가정신 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새로운 혹은 고성장의 혁신적

인 조직의 창업이나 관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창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MBA나 박사과정에서도 창업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대학 내 기업가정신 센터와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플랜 경진대회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서 개발된 창업교육 과정을 고등학교나 중학교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학 기업가정신 혹은 아카데미 기업가정신(Academy Entrepreneurship)이 창업, 특히 대학생들이나 대학의 창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면서 대학 내 창업이나 대학의 기업가정신 확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학이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핵심적 원천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도 대학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대학의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직접적인 지침들에 착수한 바 있다. 유럽 위원회에서 이를 시작한 이유는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대학에 기술의 원천들이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미국에 비해 산업체로 이러한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Rothaermel et al., 2007).

대학이 이렇듯 창업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핵심적 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도 비교적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thaermel 등(2007)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적 학술지들에 게재된 173편의 대학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대학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들이 과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은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학 기업가정신의 주요 연구영역에는 기업가적 대학 연구, 기술이전 조직의 생산성, 새로운 기업의 창업, 혁신의 네트워크 혹은 환경 등이 있음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대학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은 대학이 연구에 전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첨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고, 기술확산을 위해 산업체와의 다양한 네트워크(조인트 벤처, 산학공동연구, 라이선싱 등)를 구축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등의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3.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교육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 대학생들의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Soutaris et al., 2007; Peterman & Kennedy, 2003; Audet, 2000). 이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이나 강좌를 많이 수강한 학생들 혹은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연호, 2009).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학생들의 창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강좌나 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적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혁신성이나 도전적 자세를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경진대회는 강의실에서의 이론적 학습과 창업관련 지식과 정보를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자기의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인정받고 사업초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창업자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Babson College의 Rocket Pitch, Business Plan Competition, 대학생들의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일깨워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소유한 대학생 창업자를 발굴하고 있다.

4. 창업관련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나 강좌의 영향이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보면,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또한 창업의도나 대학생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 경우들이 많다(Soutaris et al., 2007; Peterman & Kennedy, 2003; Audet, 2000).

예를 들어, Izedonmi & Okafor(2010)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프로그램들이 창업의도를 불러일으키는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졸업한 이들의 절반이상이 창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열의는 결국 창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own & Dacin, 1997). 또한 마찬가지로 Kennedy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에 창업프로그램이나 창업정책들이 기업가적 행동을 개발하게 되면 개인의 창업에 이르게 하는 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 프로그램들은 창업의도나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 경영학교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Hostager & Decker, 1999). 이렇듯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창업관련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관련 이벤트들이 자주 개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이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증대될수록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나 생각 그리고 행동경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국내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현황

국내 392개 대학교에서 2012년말 기준 개설된 강좌 수는 총 219개이다. 이 들 강좌의 총 수강생 수는 약 26,027명이다. 창업교육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창업선도대학 등 59개 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61개 등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벤처협회 등과 함께 청년창업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실시한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의 경우 2012년 총 36회에 걸쳐 대학교에서 이루어졌고 13,42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YES리더스 기업가정신특강의 경우

182개 대학에서 53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58,2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 토론회의 경우도 전국투어를 통해 2012년 상반기에만 6회 1,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지원을 통해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의 성과를 보면 먼저 18개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총 147개의 창업강좌가 개설되어 약 5,004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는 41개 대학에서 약 1,101명이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국내 대학교들에서 창업교육은 교양 혹은 전공으로 매우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편이며, 청년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된 예스리더스(Yes-leaders)특강이나 창업한마당 투어와 같은 창업관련 행사도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을 기준으로 창업선도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 행사들의 질적인 성과 또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강좌의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약 6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관련 행사들(창업특강, 한마당투어 등)에 대한 만족도 또한 약 66%로 높게 나타났다(이재훈, 2013).

6. 창업의지

창업의지와 창업과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

동실행과 관련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좋거나 나쁜 평가라 할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Ajzen, 1982, Ajzen & Fishbein, 1980).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박시사 & 강성일, 2007). 즉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잠재적 창업가들이 국가나 조직의 경제적 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apero(1982)는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과 자기쇄신적(self-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관련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지역,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우, 2000).

Cooper & Dunkelberg(1987)는 89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는 적어도 부모 중 1명이상이 자기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rant(1996)도 경영학과 학부생과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부모의 존재여부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는 창업의지를 높여줄 것이다(윤방섭, 2004).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창업은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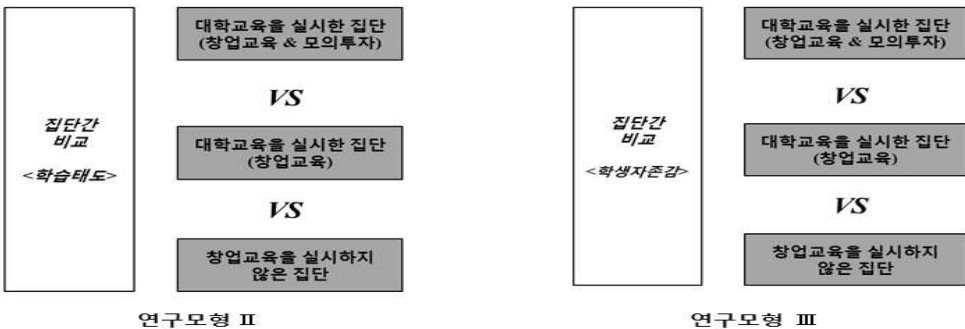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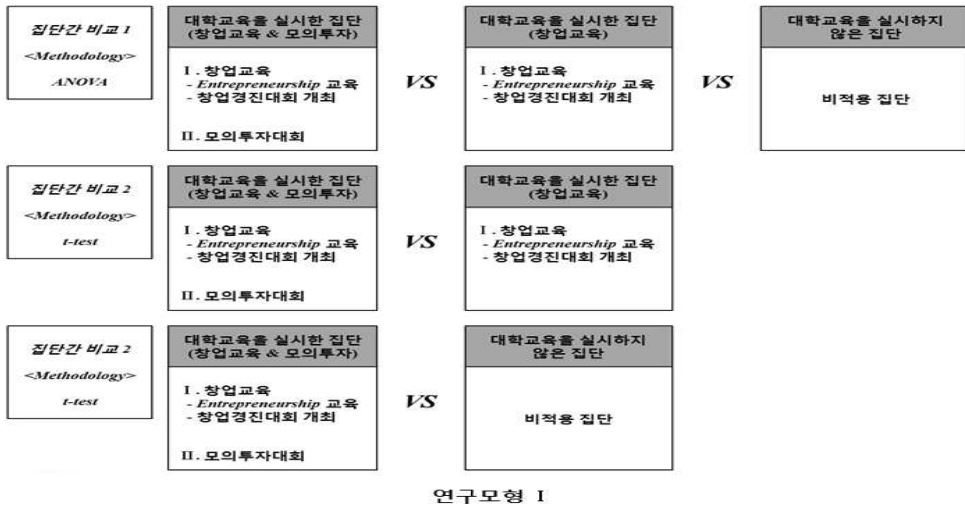
의 전문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성취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장대성, 2000; Timmons,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창업의지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I). 연구모형 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지는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수업 중 창업관련 대학교육 실시
 - Entrepreneurship 교육
 - 창업경진대회 개최
 - 모의투자대회 개최



<그림 1> 연구모형

○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종속변수 : 창업의지)

- 집단 간 비교 1 :

모든 대학교육을 실시한 집단
vs 창업교육만 실시한 집단
vs 실시하지 않은 집단

- 집단 간 비교 2 :

모든 대학교육을 실시한 집단
vs 창업교육만 실시한 집단

- 집단 간 비교 3 :

모든 대학교육을 실시한 집단
vs 실시하지 않은 집단

또한, 본 연구의 목적중 하나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 확립에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학습에 대한 열의와 학습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했다하더라도 그 수준이 약한 경우의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열의를 심어주어 학습에 대한 태도의 개선을 도모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태도가 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로 학과수업에서도 주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습자들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놓치고 대학교육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학 학습자들이 학습태도에 있어 수준이 낮은 것은 오랜 습관이나 나쁜 버릇도 작용하겠으나, 스스로 수업을 통해 작은 성공을 거뒀던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교수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열중하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교수자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 II에서는 학습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가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태도를 '학습 자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자신감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Izedonmi & Okafor(2010), Brown & Dacin(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태도와 관련된다고 판단된 세 가지 항목인 '학습의 필요성 인식', '학습에 자신감', '학습에 주도적'이라는 구체적인 3개의 항목에 대해 7점 척도로 스스로 지각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최근 대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자존감과도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습이 주요한 업무인 학창시절에 그들은 좋은 자질로 많은 성공의 경험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른 학생들의 자존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자존감은 자아개념 형성의 기초가 되며, 향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자신을 가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학습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 III에서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Soutaris et al.(2007), Peterman & Kennedy(2003)의 연구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 수정·보완하여 4개의 항목을 추출해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에 제시된 여타 항목들 중,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생의 성공 및 업무와 관련

된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 ‘좋은 자질’,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음’의 항목들이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을 통해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대학생으로써 총 120명이고, 성비는 남학생이 57명 (47.5%), 여학생이 63명 (52.5%)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분석에는 SAS 9.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I의 집단간 비교 I(창업교육 & 모의투자교육 실시 vs 창업교육만 실시 vs 대학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 검정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간 비교 II(창업교육 & 모의투자교육 실시 vs 창업교육만 실시)와 집단간 비교 III(창업교육 & 모의투자교육 실시 vs 대학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 검정을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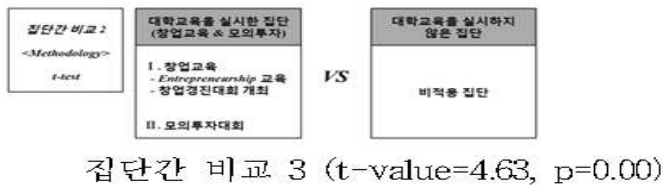
분석결과, 집단간 비교 1은 $p=0.00$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 비교 2는 $t\text{-value}=2.42$, $p=0.01$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집단간 비교 3도 $t\text{-value}=4.63$, $p=0.00$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간 비교 1 ($p=0.00$)



집단간 비교 2 ($t\text{-value}=2.42$, $p=0.01$)



집단간 비교 3 ($t\text{-value}=4.63$, $p=0.00$)

<그림 2> 연구모형 I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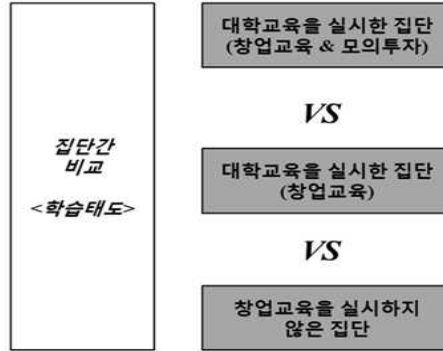
연구모형 II 학습태도에 대한 조사는 리커트형 7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대학교육요소(창업

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태도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

선, 학습태도 세 문항에 대한 신뢰성은 0.778로 신뢰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었다.

연구모형 II를 검정하기 위해 ANOVA 방법

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습태도를 기반으로 한 집단간 비교는 $p=0.00$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간 비교_학습태도 ($p=0.00$)

<그림 3> 연구모형II 검정

연구모형 III 학생 자존감에 대한 조사는 리커트형 7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른 학생들의 자존감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선, 학습태도 네 문항에 대한 신뢰성은 0.826으

로 신뢰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었다.

연구모형 III를 검정하기 위해 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집단간 비교는 $p=0.00$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간 비교_학생자존감 ($p=0.00$)

<그림 4> 연구모형III 검정

추가적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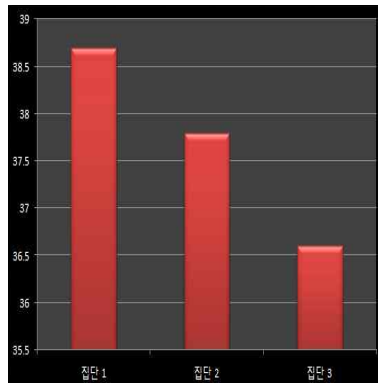
분이 바로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이다. 이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반에서는 강의를 잘 하고 다른 반에서는 강의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조작할 목적으로 강의의 질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증빙이기도 하다.

학기말에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강의의 질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평점평균으로 표시된 점수를 보면 세 분반의 강의평가는 우수하다(40점 만점). 그

려나, 각 집단 별로 집단 1 > 집단 2 > 집단 3 순으로 학생들이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집단 1 : 대학교육을 실시한 집단 (창업교육 & 모의투자) : 38.7
- 집단 2 : 대학교육을 실시한 집단 (창업교육) : 37.8
- 집단 3 : 대학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 (비적용 집단) : 36.6



<그림 5> 강의평가 결과

V. 결론 및 제언

대학생 창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기초로 다양성과 융합성이 결합된 유연한 창의적 수익 창출을 이루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이종(異種)학문의 결합과 융합은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문의 기회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의적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생 창업이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진후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 중에 취업과 창업으로 양분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창업의지를 지속시켜 실질적인 창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교육요소(창업교육, 모의투자대회개최)가 학생들의 창업의지, 학습태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방법이, 학생들에게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창업인재의 발굴과 대학생에게 맞는 창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대학별로 차별화

된 대학의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조사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업행동이 아닌 창업의지를 다루어서,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실천 창업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창업이 창의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 대학별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대학의 창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창업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이종(異種) 학문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모델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의 성과를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의 운영과 성과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박시사 ·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2), 187-204.
2. 배종태 · 차민석(2009), 창업자정신의 확장파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3.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5.
5.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의도에 개인적 특성, 대학 및 사회의 지원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7. 장대성(2000),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12, 63-82.
8. Ajzen, I.(1982), "On Behaving in accordance with One's Attitudes," Consistency in social behavior, 2, 3-15.
9. Ajzen, I. and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10. Audet, J.(2000), Evaluation of Two Approaches to Entrepreneurial Education Using an Intentions Based Model of Venture Creation,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6(1), 57-63.
11. Brown, T. J. and Dacin, P. A.(1997), The Company and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61, 68-84.
12.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13. Hostager, T. J. and Decker, R. L.(1999), The Effects of an Entrepreneurship Program on Achievement Motivation : A

- Preliminary Study, SBIDA, SanFrancisco, CA : Small Business Institute Director's Association.
14. Izedonmi, P .F. and Okafor, C.(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0(6), 49-60.
 15. Kennedy, J., Drennan, J., Renfrow, P. and Watson, B.(2003), Situation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ual Conference of Small Enterprise Association of Australia*.
 16.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 Peterman, N. E. and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18. Rothaermel, F. T., Agung, S. D. and Jiang, L.(2007),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 Taxonomy of the Literatur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6(4), 691-791.
 19.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20. Soutaris, V., Zerbinati, S. and Al-Lahan,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 566-591.
 21. Timmons, J.(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22. Vesper, K. H. and Gartner, W. B.(1997),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403-421.

Abstract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Park, Kwang-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eaching styl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And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eaching style on study attitude of undergraduate. Additionally,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eaching style on self-esteem of undergradu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eaching style. Secondly, study attitude of undergraduat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eaching style. Lastly, Secondly, self-esteem of undergraduat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eaching style.

Key Words: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Teaching Style, Study Attitude, Self-Esteem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College, kopark1021@ync.ac.kr